



양계산업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되돌아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자취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된 이후 우리 양계산업은 겨울철만 되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인체 감염과 이에 따른 사망소식 등 위험성에 대해 미디어들은 축산농가들이 겪게 될 고통은 뒤로한 채 앞다투어 '조류독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내세우며 양계산업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아넣었다.

이러한 과잉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이는 바로 양계산물의 소비급감으로 이어져 양계산업을 큰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양계협회 및 관련단체들은 주요 보도 매체를 방문해 가며 기존에 사용했던 '조류독감'을 'AI'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라는 명칭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증을 들면서까지 소비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분서주하였다.

이렇듯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시마다 양계산업은 원자폭탄을 맞은 듯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농가들이 차단방역을 위해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03/ '04, '06/ '07 발생상황 비교

리 7, 육용오리 1), 닭 10건(종계 1, 산란계 7, 육계 2)으로서 총 19건이 발생하였다.

1) 발생현황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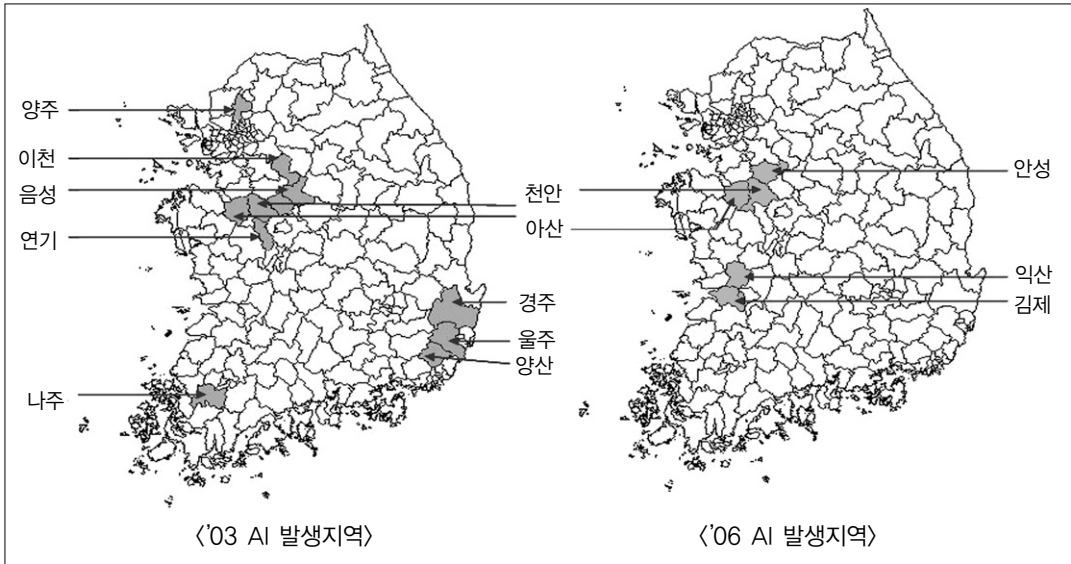
'06/ '07에는 종오리 2건, 닭 4건(육용종계 2, 산란계 2), 메추리 1건으로 총 7건이 발생한 반면, '03/ '04에는 오리 9건(원종오리 1, 종오

2) 시간 경과에 따른 주간별 발생상황

시간경과에 따른 주간별 발생상황을 보면 '03/ '04은 최초 발생 1~2주 동안 12건이 발생

표1. AI 발생현황

구분	합계	오리		닭			메추리
		종오리	육용오리	육용종계	산란계	육계	
'03/'04	19	8	1	1	7	2	-
'06/'07	7	2	-	2	2	-	1



〈그림1〉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발생지역 비교

하여 급격한 전파가 우려되었으나, 방역조치 이후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다가, 15주째 양주에서 마지막으로 발생된 후 종식되었다. 한편 '06/'07은 '03/'04과는 달리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1~3주 동안 4건이 발생된 다음 4주간 발생이 없다가, 충남 아산에서 9주째에 또 다시 1건이 발생된 이후 3주 간격으로 각각 1건씩 산발적인 추가 발생이 있었다.

3) 지역별 발생상황

지리적으로 보면 '03/'04의 경우,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을 포함한 중부권(14)과 영남권(4건) 및 전남권(1건)으로 대별되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역학적 연결 고리가 있는 2개의 큰 권역 즉, 천안권역과 음성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06/'07 발생은 충남 아산·천안, 경기 안성을 포함한 중부권(4권), 익산, 김제 지역으로 전북권(3건)으로 서해안 일대에 집중

발생하였다.

2.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03/'04년 AI발생으로 큰 피해를 뒤로하고 잠시나마 호황을 겪었다고 하지만 이도 얼마가지 않아 '06년 겨울철 11월을 시작으로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하여 총 7건의 HPAI가 발생하였다. 전북 익산('06.11.22/27)을 시작으로 김제(12.10), 아산(12.11), 천안('07.1.19/3.6), 안성(2.9)에서 총 7건이 발생했으며, 발생지별로 위험지역 반경 3k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총 460농가 2,800천마리를 예방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후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5월1일 해제됨에 따라 5월2일자로 모든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됐으며 6월 18일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에 비해 신속한 차단방역조치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미비했던 경험들이 정비되면서



우리의 대처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화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03/'0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모계열사의 원원종오리(GGPS) 및 원종오리(GPS) 중 일부가 HPAI에 무증상 감염된 채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이미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금번 발생의 경우는 과거 발생양상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또한 과거 HPAI 발생 당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농가 및 생산단체가 심기일전하여 이전 발생 당시보다도 더 신속한 신고 및 예찰과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정밀 진단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농가피해 보상에 있어서도 지원내용이 세분화되어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구매자금 등이 마련되

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다. 닭의 보상에 있어서도 종의 구분과 주령별 등으로 세분화 되어 과거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별로 피해농가에게 신속하고 지원될 수 있었다.

피해농가 지원금액('07.8.20 기준)은 총 57,394백만원의 국고가 소요되었었으며,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살처분 보상금(460농가) 24,492백만원, 생계안정자금(126농가) 1,329백만원, 소득안정자금(22농가) 152백만원, 가축입식자금(73농가) 4,078백만원, 경영안정자금(부화장 11개소, 사료공장 1개소) 24,734백만원, 구매자금(닭 430천마리, 오리 30천마리, 계란 40백만개) 2,609백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3.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 가장 높아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충남 등 중부권 4건

표2. 피해농가 지원내역('07.8.20현재)

(단위 : 백만원)

'06/'07년도 살처분 농가 지원 내역				
구분	지원내용	계획	실적	비고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농가)	당해 가축 시세의 100% 지급	25,862	24,492	460농가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가계비 지원 (사육규모별, 호당 1,300만원 한도)	1,329	1,329	124농가
소득안정자금 (입식제한농가)	이동제한지역에서 병아리를 입식하지 못한 농가(사육규모별, 호당 1,300만원 한도)	152	152	22농가
가축입식자금 (살처분농가)	가축 입식비용 용자 지원 -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4,078	4,078	73농가
경영안정자금 (부화장 등)	영업을 중단한 부화장 및 사료공장 등 -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24,734	24,734	부화장 11개소 사료공장 1개소
구매자금 (이동제한지역)	이동제한지역내 닭·오리 구매 및 계란 판매차액 보전	2,609	2,609	닭 : 430천마리 오리 : 30천마리 계란 : 40백만개
합 계		58,764	57,394	

※ 생계안정자금 · 소득안정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표3. 살처분보상금 지급실적('07.8.20)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액(추정)	지급액	비고
경 기	5,143,876	5,143,876	지급 완료
강 원	53,782	53,782	지급 완료
충 북	985,695	985,695	지급 완료
충 남	8,740,000	7,370,000	양돈농가3개소의 지급 완료
전 북	10,569,945	10,569,945	지급 완료
전 남	254,278	254,278	지급 완료
경 북	16,028	16,028	지급 완료
경 남	61,866	61,866	지급 완료
제 주	36,889	36,889	지급 완료
계	25,862,359	24,492,359	

과 전북권 3건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금 사육 집산지 중의 하나인 서해안 일대(우리나라 가금 사육의 총 74%가서·남해안 지역에 밀집)에서 집중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이 철새 도래지 및 주요 서식처 인근 소하천 주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아도 '06/'07 AI 분리주는 칭하이(Qinghai-like) 유전자 그룹에 속하며 유전자분석 비교결과 '03/'04 분리주와 97%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해외에서 국내유입에 의한 발생으로 보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을 철새에 의한 유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오는 겨울철새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포함한 생태환경 보호정책과 벼수확 방법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풍부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야생 철새 보호정책으로 그 종류와 개체수가 7년 동안 약 29%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여 향후 AI 발생 위험도는 점차적으로 증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한편 철새가 직접적으로 농장 전파에 관여

하지 않더라도 기타 텃새 등의 비자연적 숙주(면역이 없는)를 감염시켜, 이렇게 감염된 새들이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며 사육되고 있는 조류와의 접촉을 통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농가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방역의식 고조를

우리 양계농가들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기에 방역농가 행동수칙을 상기하고 준수해야 한다.

첫째,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증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농장 소독은 매회 1일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출입 등을 출입 차단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와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을 생활화해야 하며 계사에 철망을 설치하여 양생조류 등을 출입을 차단시켜야 한다.

셋째,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의 상호 접촉을 금하도록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차량의 경우 닭·오리를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해야 한다.

넷째, 분노 처리의 경우에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을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을 금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약품 운반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을 구분해야 하며, 관계자들의 농장출입을 금하고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해야 한다.

(정리 | 기영훈 기자)